

강진군, 고품질 브랜드쌀(새청무)재배기술 교육

전남농업기술원서 개발 전국적 인기...차별화된 품질개선 새청무쌀 육성자 신서호 박사 초청 철저한 재배 관리 당부

강진군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새청무쌀을 고품질 브랜드화 하기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새청무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음에 따라 차별화된 품질 개선을 통해 쌀시장을 선점하고자 새청무벼 품종 육성자인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실 신서호 박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신서호 박사는 이날 강의에서 "새청무 재배 1번지인 강진에서 강의 할 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건전종자 확보, 친환경농법 및 일

반 재배시 철저한 소독, 과학적 시비 관리, 병해충방제 신속대응 등 철저한 재배관리를 강조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경기도의 '추청', 강원도의 '오대', 전북의 '신동진' 등과 달리 도를 대표하는 품종이 없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강진군은 2018년 품종으로 등록된 새청무를 이듬해인 2019년 전국 최초로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새청무를 이용하여 대표 브랜드 쌀을 생산하기 위해 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약 1,000ha의 면적을 계

약재배를 추진하는 등 타 시군보다 앞서 새청무벼 재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의 노력으로 현재 새청무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발돋움 하였으며, 작년 기준으로 51,405ha의 면적에서 재배되어 전국 200여개 품종 중 5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 품종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강진군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제조 전문 식품기업인 ㈜시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간 유기농 새청무쌀을 150톤, 일반 새청무쌀을 200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



을 세워 생산과 유통기반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쌀산업은 새청무벼 재배의 성공 없이는 도약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농업인

"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 신청하세요"

해남군, 비대면 서비스 확대

해남군은 여권 재발급시 온라인 신청 및 우편 수령을 통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신청과 수령을 위해서는 군청 민원실을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여권 수령 시에만 민원장구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이 해당된다.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 시 선택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 추세에 맞춰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여권 무료배송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록 장애인에 한해 무료배송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여권 등 기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신청인 모두 우편요금 납부 없이 여권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50억 투입 연안 바다목장 147ha 규모 조성 중

꼬막 치패·바지락 종패 방류 등 자원·소득 증대 기여



완도군은 어장 환경변화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관내 연안 어장에 어패 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2018

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투입, 해역 특성을 고려해 수산 생물 서식 공간 제공 및 체계적 관리로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군외면 동부리 원동리에서 대창2리까지이며, 약 147ha 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3년간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꼬막 모패, 바지락 종패 매입·살포와 단지 조성 예정지 모래 살포 및 경운, 환경 개선, 자원량 파악 및 환경 조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사업 추진 4년차로 꼬막 치패 및 바지락 종패 방류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 살포, 경운, 어업인 참여형 사업, 효과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봉진문 부군수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통해 자원 회복, 체계적인 어장 관리로 안정적인 수산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장흥군, 원목표고 종균 접종 시작

"맛·품질 지키기 위해 접종 시기 잘 지켜줄 것 당부"

장흥군은 봄철 본격적인 원목표고 종균 접종 시기를 맞아 장흥표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임가들이 종균 접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흥군은 원목표고 활성화를 위해 매년 표고 종균 구입비를 전액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표고자목도 확대 지원(국비 보조 1년, 군비 보조 1년, 휴년 1년 / 3년 2회 순환제)한다. 올해에는 193인가에 표고종균

과 표고자목 구입비 669백만 원이 지원되며, 표고자목·종균 정산서 제출일은 2021년 5월 30일까지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장흥표고버섯의 품질은 종균 접종과 배양이 첫 단추가 된다는 점에서 접종 시기를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장흥표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31일까지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가맹점 불법 수취·환전행위 중점

진도군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수)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농어민공익수당,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많이 증가하면서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나 환수 등의 재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